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5월 31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 >

마태복음 5:7 / 새찬송가 278 (통일 336)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1.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보다 더 위대하고 감동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은혜란 말은 나 같은 죄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복 즉 죄 사함, 용서, 의롭다 하심, 치료, 형통함, 영생, 천국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긍휼’에서 나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약2:13).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족뿔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긍휼은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기 이전에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부모의 심정이 악인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와 행실이 옳지 못한 자와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 먼저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저 같은 존재임을 즉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기에 긍휼히 여겨주십니다(시103:13,14).

2.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은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롬9:15,16).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마 5:7), (마18:33).

하나님의 긍휼이 ‘끝까지 가는 심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완전히 죽이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가서 완전히 심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약2:13).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나중에 구출하고자 했던 르우벤의 마음 또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고 한 유다의 마음은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지는 통로로 쓰임받아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의 기근에서 구원받게 됩니다(창37:26,27).

그러나 잠언은 악인의 긍휼이 잔인하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결국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잠12:10).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는 회개할 기회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축복은 남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마6:12).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면 결국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면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복 되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3. 우리로 하여금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남에 대한 심판을 끝까지 가게 하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게 하는 외눈박이 안목이 있습니다(눅6:41,42). 이 외눈박이 안목이야말로 태생적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내 생각과 다른 남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고 공격하여 극단적 성향에 이르게 하기에 남을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또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는 사람들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원수갚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15,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향해 아무리 노력하고 달음박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일이 성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